

한국의 30대 <9>

글과 비디오 사이

술 걸치듯 비디오 한편

증권회사 과장인 변아무개(35)씨는 결혼전만 해도 틈나는 대로 소설을 읽는 게 생활의 큰 즐거움이었다. 특히 추리소설을 매우 좋아해 애저사 크리스티와 같은 외국 인기작가들의 작품은 물론이고 국내작가들의 작품까지 웬만한 것은 빼놓지 않고 읽었다.

그러던 변씨는 89년 결혼하고서부터 소설을 손에 거의 잡지 않게 됐다. 1년에 한번 있는 휴가 때나 애써 찾을 정도이다.

대신에 결혼하면서 구입한 비디오에 몰두하게 됐다. 일주일에 대여섯 편씩 보던 초창기보다 단덜하지만 변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편씩은 꼭 비디오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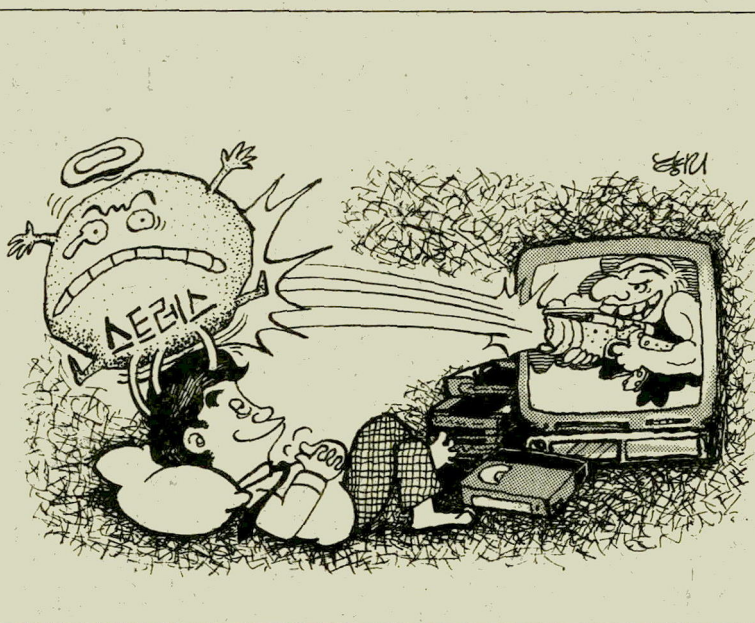
“소설이 비교적 평면적이고 약간의 수고를 들여야 한다면 비디오는

훨씬 편안하고 생생한 즐거움을 주죠. 바쁘게 생활하면서 짬을 내 머리를 식히는 데는 비디오만한 게 없습니다.”

변씨의 경우와 같이 한국의 30대에게 비디오문화는 이제 광범위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창시절 책을 통해 각종 교양과 정보를 흡수하던 30대들이 이제는 컴퓨터와 비디오가 판치는 이른바 ‘시각문화’ 속에 포위돼 있는 것이다.

한국의 30대는 활자문화의 마지막 세대이자 시각문화에 편입된 최초의 세대다. 30대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옛세대 사이에 낀 어정쩡한 세대인 것이다.

30대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비디오문화에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각문화 포위돼 어느새 책과 멀어져 퇴근길에 빌려 편하게 스트레스 해소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에 따르면 85년 4.1%에 불과하던 비디오 보유가구 비율이 90년에는 27.8%로 자그마치 701.3%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탁기나 에어컨다시너 보유가구 증가율이 100~200% 안팎에 그친 것에 비하면 가히 폭발적인 것이다.

90년 한국통계정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체가구의 42.7%가 비디오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가정을 꾸린 30대는 너무나 당연한 비디오 1대씩은 갖췄다는 얘기가.

스스로 ‘비디오광’이라고 말하는 흥은행 대리 백아무개(32)씨는 한달에 15편 안팎의 비디오를 본다. 이를 걸러 한편씩 보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말이나 주중에 3~4편씩 몰아보는 경우

가 많다.

김씨가 즐기는 프로는 할리우드활극과 중국무협영화다. 4~5년 전부터 비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의천도령기>의 경우 모두 20편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인데 백씨는 단 1주일 사이에 ‘시청’하기도 했다.

소규모 무역업체에 다니는 박아무개(31)씨는 직장일이 늦게 끝나 평일에는 비디오를 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는 부인과 함께 1~2편의 비디오를 꼭 본다.

주로 개봉된 영화 중에서 최근 것을 중심으로 코믹드라마나 휴먼드라마를 찾는다는 박씨는 “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가 바람을 쐬거나 그러지 않으면 집안에서 아내와 함께 볼 만한 비디오프로

를 골라 보면서 쉬는 것이 생활의 큰 즐거움의 하나”라고 말한다.

요즘 들어 기존의 비디오에 만족하지 못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영상과 음악이 훨씬 고급스러운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LDP)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값이 비싸고 대중화하지 못한 것이 흠이지만 이를 아끼는 사람들은 보통 비디오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한다.

연희동에서 4년째 비디오가게를 하고 있는 박경용(34)씨에 따르면 고객의 70%가 늦은 저녁 퇴근하는 남녀 직장인들이다. 박씨는 “40·50대 연령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어린이들과 10·20대가 나머지 약 30%의 고객층을 이룬다”고 말했다.

5~6년새 이처럼 30대

직장인들 사이에 비디오문화가 급속도로 퍼진 것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김아무개(33)씨의 말은 이에 대한 해답의 일단을 보여준다. “할리우드 액션영화라는 게 모두 천편일률적인 겁니다. 한 주인공이 나타나 괴력을 발휘하며 악당들을 소탕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직장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 그렇게 때려부수는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예전에 술로 풀었던 스트레스를 비디오를 보며 푸는 거지요.”

직장에서 술자리가 줄어들고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를 개인적으로 풀어야 하는 세대의 변화가 대량소비사회의 총아인 비디오 보급과 맞물려 이런 문화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4년째 흥은행에서 근무하는 장아무개(32)씨는 “1주일에 1~2편 정도의 비디오를 보아왔지만 새로 쏟아지는 비디오프로들 가운데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최근 들어 이런 ‘비디오 회의론’에 빠져든 장씨는 “비디오를 통해 현대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여가를 즐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이런 개별화한 시각문화를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



큰 일교차

전국이 맑은 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끼는 곳 많겠음. 아침기온 14~20도, 낮기온 27~31도.

<31일>

지역	날씨	기온	비율확률	해돋이 06:02	해넘이 19:02
		낮	밤	달몰이 18:16	달남이 05:03
서울	맑은뒤가끔구름	17~29	10 20	앞바다 풍향	풍속/파고(m)
대전		16~29	10 10	서해중부 북서북동	6~8/0.5
대구		15~30	10 10	서해남부	6~9/0.5
춘천		16~29	10 10	남해서부	6~9/0.5
강릉		18~30	10 20	남해동부	6~8/0.5
전주		16~29	10 20	동해남부	8~10/1
광주		17~29	10 20	동해중부	6~8/1
제주		18~28	10 20		
대구	구름 조금	17~31	10 10	◇ 물때 만조 04:50 / 17:02	
부산		20~30	10 10	(인천) 간조 10:58 / 23:22	

